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1년 2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최후의 심판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을 부르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말씀의 씨앗을 주시는 주님, 저희 마음에서 씨앗이 싹트게 하소서.
- 우리와 함께 있기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13,3-9,18-2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돌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여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힘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것에 대해 서로 얘기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¹⁾

이 해 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왓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등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물니다. (후략)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라’ 3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예수님 시대의 풍습
이모저모

유대인들의 결혼식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조혼을 했습니다. 여자는 열두 살 반이 되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두 살 된 여자들은 어린이로 여기지 않았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열두 살과 열네 살 사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신부는 집에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을 빌어 주며 신부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신랑 집으로 따라가서 결혼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화려한 결혼 잔치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 장난감

구슬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호루라기나 딸랑이, 고리, 팽이 등을 갖고 놀았습니다.



1세켈(2데나리온)의 가치 알아보기

- 부자의 망토 100-200데나리온
- 만찬 1데나리온 • 한 달 집세 4데나리온
- 로마 군인의 연봉 50데나리온
- 빵 덩어리 1/12데나리온 • 송아지 20데나리온

내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박숙이 (데레사, 칠암동본당 1-1반 반장)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칠암동본당 1-1반 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의 반장님이셨던 대모님께서 더 크고 힘든 본당의 중책을 맡으시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로 반원들이 구성되어있으므로, 반장을 자매님이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제게 넘겨주신 반장직을 얼떨결에 이어 받아 시작한 지 어느덧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반모임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한 시간들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 대모님께서 본당의 중책을 맡으시고 어려운 일도 순명으로 여기시며 씩씩하게 본당의 큰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보며 저도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소공동체의 일원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반원들의 얼굴도 익히지 못하고 가정방문도 제대로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원 어르신들의 경륜만큼이나 신심이 두터워 소공동체에서 하나 둘 배우고 함께 하며 느낀 부분은 신앙을 갖 시작했던 저에게 반장이란 직책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공동체 반장을 맡으며 지금 내가 기쁘지 않는 것은 내 것, 내 기준

에 꼭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라시던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내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 내 것과 나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매순간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참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었지요. 제 생각과 제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을 제 마음에 담고, 반원 어르신들과 함께 모임을 갖다 보니 반장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기쁘게만 느껴졌습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기쁘게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소공동체에 모임에 빠지지 않으시고 참여 해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남강변에 쓰레기를 주으시며 환경보호 활동도 하시는 반원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반원들을 뵈올 때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편으론, 반장을 맡아오며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 모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화를 실천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